美 영화 스님이 강설한 부처님 유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유교경
영화 스님 강설
상욱 · 현안 · 김윤정 옮김
어의운하/1만5천원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 담은 경전
마지막까지 부처님은 '지계' 강조
"일심으로 수행하라" 당부 '감동'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우리들에게 정언명령과 같은 유훈을 남겼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으로 압축되지만, 그보다 더 생생한 가르침을 담아낸 경전이 있다. 바로 〈불유교경〉이다. 〈불유교경〉은 한국 불자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경전이지만, 동아시아 전통의 선종에서는 〈사십이장경〉, 〈위산경책〉과 더불어 '불조삼경(佛祖三經)'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경전이다. 총림에서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경전이기도 했다.

〈불유교경〉은 이름 그대로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설한 법을 담은 것으로,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자 제자들에게 대한 절절한 당부들이 담겼다. 삼장법사인 구마라집이 번역하였는데, 산스크리트 원본과 티베트본에는 없는 경이다. 미국 위앙종을 이끌고 있는 영화 스님은 〈불유교경〉을 지난 2008년에 미국의 베트남 사찰에서 영어로 강설했고, 이 책은 당시 강설한 내용 풀어놓은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불유교경〉은 다른 경과 같이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세 가지 체계로 나눠진다. 〈서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인연 있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시고, 사라쌍수에서 입멸 직전에 제자들에게 법의 본질을 설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정종분〉은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당부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계율'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룬다. 영화 스님은 자신의 강설에서 이 점에 주목한다.

"부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친 법은 무엇일까요? '신묘장구대다라니'나 신주의 왕인 '능엄주'와 같은 거창한 이름이 아닙니다. 밀교나 탄트라법도 아닙니다. 정토나 참선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수행하려면 우선 계율부터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은 '정종분'에서 많은 부분에 거쳐 계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그 공덕과 대응책의 부문을 설하고 있다. 또한 감각기관, 욕망, 게으름 등을 다루는 것이 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임도 설하고 있다. 그만큼 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자에게 가장 근본임을 드러낸다. 또한 과식, 게으름, 졸음, 분노 등을 어떻게 경계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이 부분에서는 이 경이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당부하는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자에게 당부하는 내용 중에는 사고팔거나, 무역하거나, 건물을 모으거나, 노비를 부리거나, 짐승을 키우거나, 재물을 모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관상, 길흉 등 역수산계를 하지 말라고 하고, 주술을 부리거나 높은 가문의 사람과 연줄을 쌓고 너무 친하게 지내거나,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부처님은 "출가자는 오직 몸가짐을 절제하고 때를 맞춰서 먹으며, 스스로 청정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 같은 절절한 당부는 〈불유교경〉의 처음부터 이어진다.

'유통분'은 결론의 성격이기에 다른 경에서는 비중이 비교적 작지만, 〈불유교경〉에서는 비중이 비교적 높다. 부처님의 마지막까지 간절히 권하는 당부는 "일심으로 수행하라"이다. 세상은 무상하니, 근심과 괴로움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신다.

영화 스님은 이 부분에서 "일심(一心)으로" 라는 말씀에 주목한다. 영화 스님은 대승은 정념(正念, Mindfulness)이 아닌 "일심을 강조한다"고 강설한다. 일심은 정념으로 이어지지만, 정념이 일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불유교경〉의 내용은 오로지 계정혜를 바탕으로 "수행 정진하라"는 부처님 말씀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는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겐 절절한 화두로 다가온다.



부처님 성지서 전하는 따뜻한 편지



가자 부처님 나라로
지용 스님 지음
도반HC 펴냄/5천원

부처님오신날 맞아 발간된 포교책자
부처님 성지 관련된 가르침들 담아내



부처님오신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일곱 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선언하신 아기 부처님이 오신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팔 룸비니 성지에는 가기 어렵다면, 부처님 성지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주혜)는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자 부처님 나라로〉로 포교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 〈가자 부처님 나라로〉는 육군 상무대 무각사 주지 지용 스님〈사진〉이 집필했다. 책은 룸비니와 카필라부터 △전정각산(前正覺山) △보드가야 △녹야원 △우루벨라 마을 △영취산 △기원정사 △상카시아 △바이샬리 △날란다 대학터 △쿠시나가르 등 11곳의 부처님 성지에 대한 소개와 관련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특히 법우에게 이야기하듯 편지글 형식으로 유려하고 잔잔히 풀어내 쉽게 다가온다.

지용 스님은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낸 뒤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바로 불자들과 함께하는 인도성지순례였다"면서 "부처님 성지는 우리 불자들에게 늘 새로운 감동과 지침을 준다. 내가 느낀 그 감동을 많은 불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들어 법륜 스님이 1250명의 순례단을 이끌고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셨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100여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43일 도보 순례를 하셨다"며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불자들이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에 환희심이 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반HC는 2023년도 달력 주문사찰과 100권 이상 법보시하는 곳에는 특별가격으로 이번 책을 보급할 예정이다.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은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만큼 좋은 수행도 없다"며 "〈가자 부처님 나라로〉를 보며 공부하고 또 직접 순례를 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사르나트) 어느 누가 불교를 조용한 은둔의 종교라고 했던가요. 녹야원에서 만나는 불교는 더없이 역동적이고 힘찬 모습입니다. 지금도 녹야원 한 가운데 우뚝 솟은 다메크 탑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처님의 우렁찬 전도선언이 들리는 듯합니다. - 48~49쪽

(영취산) 영취산에 올라 바라보면 탁 트인 드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이곳이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대륙에서 가장 번성한 대도시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숲길이고 광야이지만 아는 사람에겐 수많은 사연들이 영화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발 한발 오를 때마다 경전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언덕길입니다. 그 언덕길 끝자락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 '여래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끄러미 손님을 맞이하시던 여래의 표정에는 아마도 파도치던 세상사가 닿지 못하는 미소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 70쪽

(바이샬리) 〈열반경〉을 보면 바이샬리를 떠나시던 길에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시고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는 것도 내 생에 마지막이구나."라며 짙은 감성의 말씀도 남기십니다. 강을 건너 떠나시는 노 성인과의 이별이 안타까워 강기슭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발우를 띄워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스승이지만 이런 다정한 손길도 있는 분이기에 자취만 남은 사리탑에서 그리워하는 순례자들도 잊지 않고 살펴주시리라 믿어봅니다. – 100쪽

(쿠시나가르) 아직 영글지 않은 우리들이기에 진심 어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해도 때론 헤매고 때론 주저앉기도 할 겁니다. 법우님!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들어 아련한 성지들을 떠올립니다. 그 길 위에서 걷고 또 설법하시던 부처님도 함께 그려봅니다. 청정한 믿음을 가진 불자가 절박함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 순례는 그렇게 일어날 힘을 주고 걸어갈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든 부처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래에 대한 최고의 예배일 것이고, 우리가 정성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 120~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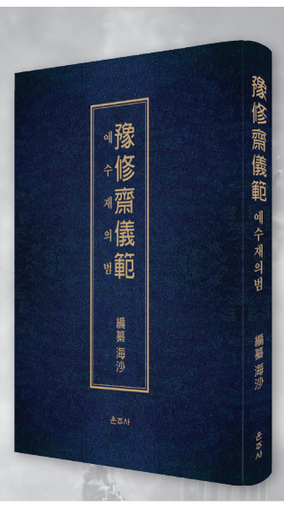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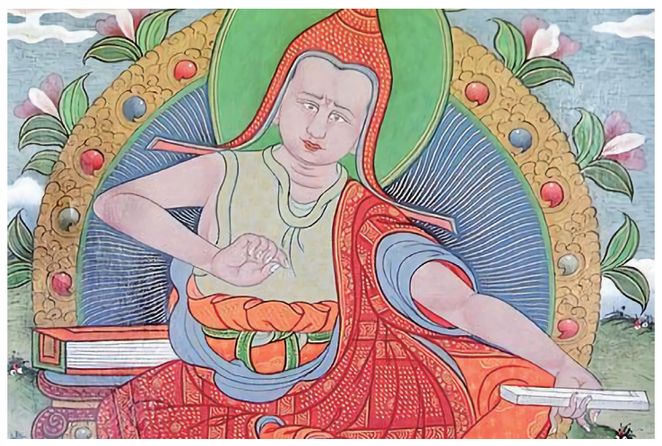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 강해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